

해외·조세·동향·보고

Volume 2, 2009년 03월

OECDdirect ('09.03.02호)

- 맨섬(Isle of Man)¹⁾, 독일 정부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
 - 맨섬과 독일정부는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양자 간 협정을 체결
 - 이로써 맨섬은 OECD 회원국 등과 13개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하게 됨
 - 이에 Jeffrey Owens OECD CTPA국장은 이러한 협정을 통해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, 맨섬 이외의 모든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기준 및 조세정보교환 협정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
- ※ 2007년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협정 참여 선언 이후, 현재까지 OECD회원국과 36개의 양자 간 협정 체결²⁾

1) 면적은 572km², 인구는 7만 7300명(2003)이다. 최고점 610m이다. 주도(主都)는 더글러스이다. 빙하기에 형성된 대지상(臺地狀)의 기복이 완만한 지형이다. 기후가 온난하여 아열대성 식물이 자생하며, 경치가 아름다워 요양·관광지를 이룬다. 35개 협조적 조세피난처 중 한 곳.

2) "Tax Cooperation: Towards a level playing field - 2008 Assessment by the Global Forum on Taxation", OECD

□ OECD의 조세회피 및 탈세와의 전쟁: Financial Centre를 중심으로

○ 최근 몇 주 동안 주요 국제금융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투명성제고와 조세정보교환 협정에 관한 긍정적 성과를 냄

○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는 최근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OECD 기준에 참여하고 이를 시행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.

· 싱가포르 (Singapore)

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세정보교환원칙을 받아 들여 2009년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

· 홍콩 (Hong Kong, SAR)

2009년 하반기 OECD 기준에 근거하여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할 계획

· 안도라 (Andorra)

조세정보교환협정에 참가할 의향이 있으며, 이를 위해 과도한 금융정보 기밀유지 정책을 폐지할 예정

· 맨섬 (Isle of Man)

독일정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

- 리히텐슈타인 (Liechtenstein)
미국정부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및 OECD 기준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
 - 케이먼 제도 (Cayman Islands)
7개 북유럽 국가(Nordic Economies)와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예정
- 조세회피 및 탈세 목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정보 비공개정책은 세계 경제 환경에 사라져야할 항목 중 하나라고 평가

OECDdirect ('09.03.16호)

□ OECD 기준을 통한 국제적 조세협력체제 강화

- 지난 12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주요 국제금융 조세피난처들이 정보교환 협정에 동참하고, 참여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
- 최근 오스트리아, 룩셈부르크, 스위스 등은 향후 조세 협약 체결 시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을 채택하기로 발표하였으며,
- 또한 홍콩, 싱가포르, 안도라, 리히텐슈타인 등은 정보 교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내법 등을 정비하기로 발표

- 이에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는 “이러한 각국의 발표는 국제조세협력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고,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”이라고 평가하고 “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한 방법인 세수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전망
- 또한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예정인 G-20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의 성과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힘

OECDdirect ('09.03.20호)

- OECD 조세정보교환 원칙, 양자 간 협정체결에 기준으로 이용
 -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G-20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간 조세협력체계 강화에 지대한 관심
 - 지난 수년간 투명성 제고와 정보교환 확대를 위해 OECD에서 진행해온 사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
 - OECD는 조세협정 등을 통하여 축적하여 온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조세협력에 관하여도 많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있음
 - 이러한 OECD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원칙은 지난 2004년 G-20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되어 현재까지 양자 간 협정 체결 시 규범으로 차용되고 있음

- 지난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OECD가 조세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 받고,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Working Paper 형태 등으로 OECD 상임회의 등에 보고되었고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시행 중

OECDdirect ('09.03.23호)

- 마카오(Macao, China), OECD 조세정보교환 기준 시행 계획 발표
- 국제금융 조세피난처 중 하나인 마카오는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기준을 따를 것으로 발표
- 2005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OECD Global Forum on Taxation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투명성 제고와 다른 정부와의 원활한 조세정보교환을 위해 관련 국내법을 2009년 말까지 정비하기로 함

OECDdirect ('09.03.26호)

- 모나코(Monaco), 조세교환협정 참여 발표
-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는 모나코의 OECD 조세교환협정기준 참여 발표를 환영

- 모나코 정부는 OECD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“유럽연합과의 부패방지협약에 OECD 조세정보교환 협정기준을 반영할 것”이라고 밝힘
- 또한 2009년말까지 본 협정 체결을 완료하고, 이후 본 협정에 의거하여 자국 내 금융정보 등을 모든 EU 회원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모나코는 OECD에 의해 조세피난처로 분류(2000년)되었고, 2002년도에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(unco-operative tax havens)로 재차 분류된 바 있음

OECDdirect ('09.03.27호)

- 건지(Guernsey), 저지(Jersey), 맨섬(Isle of Man) 등 조세정보교환협정(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) 참여 선언
 - 최근 위에 언급한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OECD가 주도하고 있는 조세정보교환협정(TIEAs)에 참여하기로 하고 주요국들과의 협정 체결을 진행하고 있음
 - 맨섬, 프랑스 등 12개 OECD 회원국과 협정 체결 완료
 - 건지 또한 프랑스, 아일랜드 등 11개 OECD 회원국과의 협정 체결을 완료

- 산마리노(San Marino), 국제적 조세협력체제 강화
 - 산마리노는 OECD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양자 간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 의사 표명
 - 이에 관련 국내법(금융정보교환 등에 관한 법률 등)을 2009년 9월 말까지 정비하기로 발표
 - 산마리노는 2001년 투명성 제고 및 효과적인 조세 정보교환 원칙에 참여 선언 이후 꾸준히 관련 협정 개선작업에 참여 하는 등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에 노력